

‘늙은 순례자’와 떠나는 위험한 음악여행

‘나의 서양음악 순례’

서경식 지음

분명, 당신이 좋아하는 수많은 책 가운데 말씀 없이 이 책을 접어들었다면 그건 ‘나의 서양 미술 순례’가 주었던 잔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92년 창비에서 출간된 ‘나의 서양 미술 순례’는 기존의 미술 관련 서적과는 관이하게 달랐다. 화려한 글쓰기도, 현학적인 자기과시도, 과도한 미술사적 정보도 없었던 이 책은 온전히 미술 작품과 부딪힌 한 사람의 감상기로 깊은 울림을 줬다. 그건 아마도 재일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듬은 한 사람이 단순히 미술 감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현대사와 시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도쿄 오케이자대학 법학부 교수인 서경식이 이번에 펴낸 ‘나의 서양음악 순례’ 역시 전작의 매력 그대로 담겨 있는 책이다. 단순히 음악인들을 나열하고, 작품과 음악축제를 소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삶과 철학이 담겨 있다.

전작을 쓸 때 ‘30대의 절망한 청년’이었던 저자는 어느새 60세의 ‘늙은 순례자’가 되었고 그는 ‘위험한 음악’이라는 장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문화월간 ‘내비’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의 음악 순례에는 F라는 여인이 동행한다. 음악가 출신인 F는 그에게 ‘동반자이자 벗이요 아내이며, 때로는 딸 같기도 한 여성’이다. 책 속에는 그녀와 나는 음악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 음악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책의 앞 부분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어린 시절과 젊은날의 추억을 더듬고 있다. 중상계급의 표식이었고, 그것은 ‘일본인’이라는 표지이기도 했



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의 입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에게 반감을 가졌던 어린 시절, 처음으로 집에 값비싼 스테레오가 들어오던 날의 풍경, 친구들을 통해 접하기 시작한 클래식의 세계 등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에 유학 갔다 사상범으로 오랜 감옥살이를 하던 두 형(서승, 서준식) 중 한명은 취조를 받던 중 분신자살을 기도, 화상을 입었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일본과 한국을 60여차례 오가며 육바라지를 하던 어머니의 죽을 앞에서 포레의 ‘레퀴엠’과 존 스티븐슨의 ‘어름의 마지막 잠마’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몽클레진다.

난생 처음 떠난 유럽여행 중 파리에서 ‘음향이 귀에서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피부를 통해 척추를 울리며 들어오는 경험’을 한 드뷔시 작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해로 12년째 방

문하고 있는 잘츠부르크음악제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도 눈길을 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작곡가는 말라와 윤이상이다. 특히 생전에 수차례 만났던 윤이상은 형들의 구명활동을 해야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처음에는 정치적 수난자로서의 측면에 눈길을 뒀지만 이후 작품 세계에 깊게 빠져들게되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폐되었던 베토벤의 ‘합창교향곡’과 교수형 집행장에서 여성 수인인 케스트라가 연주하던 경쾌한 행진곡에 대한 글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폭력’의 의미를 되짚는다.

책에 다소 무거운 주제만 담겨 있는 건 아니다. 끊임없이 음악을 찾아다니고, 음악회를 찾는 저자의 부지런함 덕에 클래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도 만날 수 있다.

〈창비·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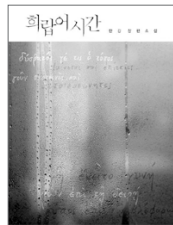


잘츠부르크 시가지 전경. 이곳에서 열리는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음악을 둘러싼 투쟁의 최전선이다.

두 남녀... 빛도 소리도 없는 시간들

‘희랍어 시간’

한강 지음



시력을 잃은 후의 시간을 모국어를 쓰는 곳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희랍어를 가르친다.

당연히, 두 남녀가 만나는 곳은 한 희랍어 수업에서였다. 두 남녀의 이야기가 교차해 진행되던 소설은 두 남녀가 서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 고요한 절정을 이룬다.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어둠이 만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이들이 빛도 소리도 없는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여자가 첫눈을 뱉어내는 마지막 장면은 눈물겹다. 결핍과 상처를 서로 다독여주는 과정은 삶을 닮아 있다.

〈문학동네·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와 삶과 철학... 기적 같은 만남

‘철학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지음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를 예로 들어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수선화가 상징하는 나르시시즘 신화를 설명하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수선화를 표현했다고 해석한다.

또 최승자의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는 실존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시인의 삶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요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시적인 비유와 은유보다는 직설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자신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시대의 정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타인 아닌 자신에게로 되돌아 가라

‘우리는 왜 혼자일 때 행복할까’

플커 키츠·마누엘 투슈 지음



과감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데서 시작한다고 덧붙인다. 행복에 대한 이론을 늘어놓기 보다는 ‘자신에 맞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친지, 친구 등 타인이 원하는 모습대로만 살아가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은 더욱 불행해진다. 행복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에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두 심리학자가 수년간 상담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낸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안내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업윤리와 직무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옳은 경영이 세상을...’

정운용 지음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의 ‘옳은 경영이 세상을 바꾼다’는 윤리 경영의 두 축인 기업 윤리와 직무 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적극적인 이익창출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으로, 이런 의미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이익의 희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로 윤리경영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가, 영업이익 등에서 광복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사회책임경영 컨설팅업체 콘로퍼에 따르면 “가치가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이 1993년 66%에서, 2004년 86%로 20% 늘었다. 〈라이프맵·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일깨우다

‘자연치유혁명’

김동석 지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을까? 담양의 암치료 전문 병원인 명문한방병원 김동석 원장의 신간 ‘자연치유혁명’은 약이나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치료되는 자가 치유능력에 대해 소개한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정화할 자정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질병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면역시스템의 복원이 이뤄진다면 치료가 가능하고 다시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호흡법과 명상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돼 암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 등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

〈상상출판·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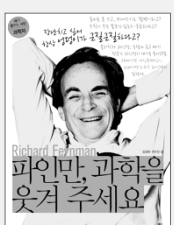
▲NIE 선생님 첫걸음=한국평민지하회회가 초보 강사를 위한 가이드북. 이 책은 초보 강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NIE의 이론적 배경, 수업진행 요령,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초등학교에서 NIE 지도를 준비 중인 교사, 강사, 기자들이 저자로 나서 NIE에 대해 개괄적이지만 정확한 기본 지식을 전하고 초등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NIE 수업의 모형과 사례를 소개한다. 〈신문화교육·1만5000원〉



▲가고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현대미술 전문가이자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화 씨가 지난 20여 년 간 유럽의 미술관을 다니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미술관과 작품을 골라 이야기거리를 펼쳤다. 발바오 구겐하임이나 테이트 모던, 루브르 박물관, 베를린 신국립 미술관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 미술관부터 홀브로이히 박물관 심지어나 팔레트 도요치리 고흐관념을 깨는 색다른 미술관 16곳을 만날 수 있다. 〈아트북스·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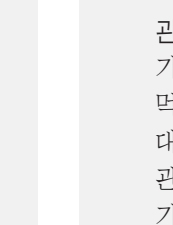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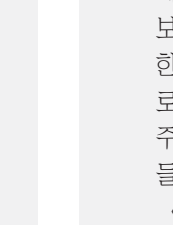
▲파인만, 과학을 웃겨주세요=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성희씨가 들려주는 알기 쉬운 과학 이야기. 아이들에게 왜 수학과 과학을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즐거운지 먼저 알려 준다. 또 농담 박사 파인만이 실컷 웃기면서 아이들을 수학과 과학의 세계로 이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난 과학 이야기가 곁들여졌다. 〈탐·9500원〉



▲울지마 톤즈, 그후 선물=TV 다큐멘터리와 영화 ‘울지마 톤즈’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담은 구수환 PD의 에세이. 지금은 고인이 된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아프리카 톤즈로 가기 위한 고달픈 여정, 톤즈의 참혹한 실상, 톤즈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견하는 이태석 신부의 유산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저자는 톤즈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나눔의 삶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말한다. 〈비아북·1만3000원〉

▲조조 사람혁명=난세에 살아 남은 조조에 대해 소개한다. 그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인 인재를 고르고 활용하는 키워드만을 소개한다. 성공은 혼자 할 수 없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던 혼란기 전화를 통일했던 조조의 사람 보는 안목과 이들을 활용하는 경영법이 담겨 있다. 〈한국경제신문·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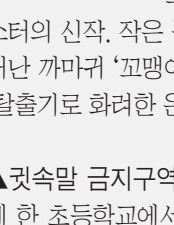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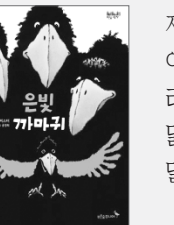
▲프롬작 레이선=미국 여성 변호사 엘리자 베스 웨첼이 오랜 시간 자신을 갉아먹어온 우울증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저자를 자살 충동에서 구해준 것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적의 알약’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항우울제 ‘프로작’이었다. 책 출간 당시 6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복용했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이었다. 〈민음사·1만6500원〉



▲곤충과 놀자=지식 그림책의 세계적인 거장 도다 고시로 의 유작으로 일본에서 출간된 후 2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에 걸맞은 간결한 글과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사한 수채화와 간결한 펜화도 물방개, 왕사마귀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출판사·9800원〉

▲어린이를 위한 시간 관리의 기술=200만부 이상 판매된 ‘어린이 자기 계발 동화’ 시리즈의 후속작이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학교 숙제며 준비물 챙기기며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주인공 진후를 내세워 시간 관리의 중요성 깨닫기,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시간 도둑 잡기,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기 등 다섯가지 실전 기술을 동화와 정보 형식으로 전해준다. 〈위즈덤하우스·9천800원〉

▲아빠, 더 읽어 주세요=미국 문단의 권위 있는 상인 2011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으로 신예작가 데이비드 에스라 스테인의 작품이다. 더 놀다 자고 싶은 꼬마 닭과 꼬마 닭을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 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꼬마 닭은 아빠한테 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 〈시공주니어·1만원〉

▲은빛 까마귀=에르바 상,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 등을 수상하고 화려한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를 통해 전세계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신작. 작은 몸집을 가지고 가장 늦게 태어난 까마귀 ‘꼬맹이’의 용기가 있고 씩씩한 왕따 탈출기로 화려한 은막기법이 인상적이다. 〈푸른솔 주니어·1만원〉

▲긱속말 금지구역=김선희씨의 신작으로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을 그대로 그려낸 작품이다. 부모와 자녀문제, 학교 교육문제, 개인의 집단 심리 문제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졸업 학급 반장을 맡았던 주인공 박세라는 회장 선거에서 한표 차로 차예린을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왕따의 길로 접어든다. 〈살림어린이·9500원〉